

KMI 동향분석

VOL.110
2019 MARCH

발간년월 2019년 3월(통권 제11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홍현표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김수현 대중어관측팀장
(shkim@kmi.re.kr/051-797-4504)
조국훈 관측기획팀 연구원
(ghcho@kmi.re.kr/051-797-4519)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장
(mobydick@kmi.re.kr/051-797-4541)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성과사례집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발간되었다. 「2018 수산관측 성과 사례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업관측사업이 정보의 유일성, 적시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정책현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수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 정보도 해당 월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제공하는 정보에는 시설량 또는 양성물량, 판매량, 양성 상황, 산지가격, 도매가격, 해외시장 가격, 수출입 물량과 단가, 출하량과 가격에 대한 단기 전망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도소매업자, 양식어업인의 의사결정과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도소매업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산지의 생산, 가격 동향뿐만 아니라, 도매단계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가격 변화를 신속하게 제공해주고 있으며, 다른 생산 지역의 동향 정보까지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식어업인들로 하여금 입식, 양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는 출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미역의 경우 가공 미역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와 가공업체간 미역 원초 가격을 협상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동 협상에서 양측의 의견 조율이 매우 어려웠으나, 관측정보가 전달되고 난 이후부터는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관측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측사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가격 안정화 효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6개 품목에서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여 가격 안정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어류와 패류에서 그 효과가 컸다. 그리고 수산업관측사업의 실시로 인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연간 144억 원 이상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관측사업예산 대비 4.5배 정도의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9년에는 수산물 품목별 중장기 수급모형이 구축되어 양식어업인 및 도·소매인들의 장기적인 의사결정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도 구축되어 3월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산물에 대한 중장기 수급전망과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업관측사업, 어업현장에서 높은 호응

■ 수산업관측사업, 수산물 수급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시작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다양한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산분야와 관련된 정보는 그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여 수산관계자들이 경영 활동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수산업의 생산 공간이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산업적인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이지만, 산재해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함

그림 1. 수산업관측사업 주요 발간물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한편, 이러한 정보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생산자와 유통업자간, 생산자끼리 또는 유통업자끼리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보유하게 되어 관련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 수급 불균형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모든 산업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전담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에 수산업관측센터를 설립하여 수산업관측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양식품목 16개, 대중성 어종 6개, 수산종자품목 5개 등 총 25개 품목¹⁾에 대한 관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 외에도 관측사업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이용한 심층 분석 정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월간 수산물관측&이슈, 주요 수산물의 주별 가격 동향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수산업관측사업, 종합적인 월별 수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사업²⁾

- 수산물의 수급 현황과 관련된 조사·분석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30개 지역의 어황과 해황과 같이 어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인 정보와 4개 시장 42종의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 가격정보를 (사)어업정보서비스센터³⁾에서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은 농업부를 중심으로 수산물 가격과 같은 통계자료 및 수산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농업부에 소속된 수산물 관련 기관으로는 어정지휘센터, 황해발해구 어정국, 어업선박점검국, 중국수산학회, 중국수산과학연구원, 전국수산기술보급중앙소 등이 있음. 이들 기관에서는 중국 80개 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의 월별 평균가격을 제공하고, 수출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는 수산자원과 해양 상태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 농무부는 5년 마다 양식 경영체를 대상으로 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 재고, 판매, 가격 등에 대한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 수산업관측사업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양식품종 : 해조류(김, 미역), 해면어류(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농어, 송어), 패류(전복, 굴, 홍합), 내수면(뱅장어, 송어), 기타수산생물(멍게(우렁쟁이))

•대중성 어종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수산종자 : 광어(넙치)종자, 우럭(조피볼락)종자, 전복종자, 김종자, 미역종자

2) 김관수 외, 『2016년 수산업관측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1, pp.69~71

3) (사)어업정보서비스센터는 1972년에 설립되어 해황, 어황,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참치 등의 국제 자원의 관리, TAC제도의 운영, 수산물 유통의 조사, 외국 어선의 조업 실적 파악 등 수산 행정 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수집·분석 처리하는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해양연구소를 통해 주요 어종의 생산추이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발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호주의 국가양식협의회에서는 연어, 남방참다랑어, 새우, 전복, 굴, 바라문디, 홍합, 방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처럼 수산물의 수급과 관련된 정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음
- 따라서 수산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해황, 양성 상태, 생산량, 산지가격, 도매가격, 수출입 등 종합적인 수급 정보를 개별 품목에 대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가격, 수출입 전망에 대한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는 수산업관측사업은 앞서 언급한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종합적인 수급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업관측사업, 정책현장에서 높이 평가

- 15년 동안 진행된 수산업관측사업의 성과에 대해 정보의 주요 수요자인 어업인과 어업인단체, 수산물 가공업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년 수산관측 성과 사례집」을 보면 종합적인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정책현장에서 높게 평가했음
- 수산업관측사업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수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 정보도 해당 월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임. 이러한 정보에는 시설량 또는 양성물량, 판매량, 양성 상황, 산지가격, 도매가격, 해외시장 가격, 수출입 물량과 단가, 출하량과 가격에 대한 단기 전망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소매업자나, 양식어업인의 의사결정과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업계에 40년을 종사했다는 중도매인은 관측월보에 산지의 생산, 가격동향이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도매단계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가격 변화를 일목요연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 주요 산지별 생산과 가격 동향에 대한 정보까지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음
- 한편, 마른멸치의 경우, 국민 식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측정보가 유일하게 수급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음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음

■ 수산업관측정보의 효과성과 적시성에서도 어업인들은 높이 평가

- 수산업관측 정보는 양식어업인이 입식, 양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는 출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음
-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미역의 경우 가공미역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와 가공업체간 미역 가격을 협상하게 되는데, 이 협상에서 과거에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관측정보가 전달되고 난 이후부터는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생산자와 유통업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관측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한 사례는 송어양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음. 송어의 경우 생산자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에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생산자들은 전국적인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유통인들 중 일부에 의해 생산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수산업관측정보가 제공되어 전국의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 수 해결되었고 결국 양식어업인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음
- 한편, 정보의 효과가 크다는 평가 외에도 정보의 주기와 관련된 의견도 있었음. 기존의 수산물 수급 정보는 그 분석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표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정보는 사후정보로서의 가치는 크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컸음
- 그러나 수산업관측정보는 전월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익월 초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시간적 격차를 한 달 정도 단축하여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음

■ 외부 기관에 의한 관측사업의 효과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 수산업관측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최근의 결과도 그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의 평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는데, 관측사업의 가격 안정화 효과와 사회 후생 증대 효과를 계량적 분석에 의해 평가하였음. 가격 안정화 효과란 관측사업이 도입되기 전과 이후의 가격 변동성을 비교하여 가격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평가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 안정화 효과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류와 패류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컸으며, 해조류 중 미역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표 1. 관측사업 성과 평가 결과

품목	가격 안정화 효과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관측사업 이전	관측사업 이후	금액(백만 원)
김	0.239	0.237	2,628
미역	0.672	0.440	665
광어	0.583	0.127	3,845
우럭	0.488	0.186	1,301
전복	0.276	0.105	4,385
굴	0.694	0.343	1,242
송어	0.361	0.216	305

주 : 1) 가격안정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품목별 관측 전·후 시기는 김은 관측 전('90.11~'05.5) 관측 후('05.11~'18.5)이며, 미역은 관측 전('97.1~'08.4) 관측 후('09.1~'18.4), 광어는 관측 전('90.1~'07.6) 관측 후('07.7~'18.7), 우럭은 관측 전('93.1~'08.10) 관측 후('08.11~'18.7), 전복은 관측 전('02.11~'09.10) 관측 후('09.11~'18.7), 굴은 관측 전('90.1~'08.9) 관측 후('08.10~'18.7), 송어는 관측 전('90.1~'09.11) 관측 후('09.12~'18.7)임

2) '사회적 후생효과'는 2013~2017년 5년간의 품목별로 계측함

자료 : 김관수 등, 「2018 수산업관측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2018. 11.

-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는 수산업관측정보가 생산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생산자가 알맞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임
-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복의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가 4,385백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광어 3,845백만 원, 김 2,628백만 원, 우럭 1,301백만 원, 굴 1,242백만 원, 미역 665백만 원, 송어 305백만 원 등 연간 144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어, 관측사업예산 대비 4.5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측사업 수요자 만족도, 8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 관측정보 수요자에 의한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동 조사는 어업인, 가공·유통인,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매해 실시하고 있음. 동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관측정보의 만족도, 활용도, 의사결정 효과 등을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고 평가받음으로써 사업의 미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 조사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조사업체의 전화설문을 통해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관측정보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으나 80점 이상 높은 수준에 있음
- 관측정보의 활용도 또한 70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측정보 제공 이후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봐서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 관측사업 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관측정보 만족도	관측정보 활용도
2016년	81.7	75.2
2017년	83.9	75.1
2018년	80.7	73.4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

■ 관측사업, 미래 예측력도 비교적 높아

- 수산업관측정보 중 전망 정보는 사실상 국내에서 발표되는 유일한 정보라 할 수 있음. 관측전망 정보는 어업인 등의 미래 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관측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달 그 전망 정보의 적중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전망정보의 평가는 전망모형에 의한 정량전망을 실시하고 있는 김, 미역, 광어, 우럭, 전복, 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성정보를 제공하는 나머지 품목들도 향후 전망모형을 구축하여 정량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표 3. 관측전망 적중률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적중률	85.6	94.2	94.2	92.1	92.3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

- 2018년 전망 적중률은 92.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은 적중률은 관측정보의 효용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2019년, 정보의 다양화와 신속화를 통해 더욱 효과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19년 1월에 개최한 해양수산전망대회는 수산업관측사업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이는 관측사업의 숙원사업인 품목별 중장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수급 관련 미래 전망치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 중장기 모형의 개발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2019년에는 그간의 관측정보를 다양화하고, 더욱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구축하고 있는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을 통해 우선 대중어에 대한 실시간 수급정보를 전달할 계획임.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더욱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정보 발표 직후 SMS를 이용하여 정보 수요자들이 월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지면이 한정되어 많은 정보를 싣지 못하는 기존 월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수산 관측 Insight”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더욱 심층적인 수급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어업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광어 등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긴급한 상황 변동 등 필요한 경우 관측 속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전달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임
- 이처럼 2019년은 그간 누적된 관측정보를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는 더욱 질 높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또한 더욱 강화할 예정임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횡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URL: <https://www.kmi.re.kr/>